

광해군이 집권하던 시기
이수광이 청나라 등을 여행하면서

우주와 자연, 지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고

영국, 이탈리아 등 서양의 문물을 소개한 20여 권의 백과사전입니다.

이 책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며

정약용 등 후대의 실학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서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지봉유설>에는

우리나라 소주 제조에 대한
유래가 나와 있는데

바로 고려 시대
원 간섭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원 간섭기 당시
몽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소주 기술은 당시 몽골의 병참기지였던

안동, 개성, 그리고 제주도로
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 고려의 행정부를 설치한 곳은
평양의 동녕총관부

함경남도 영흥의 쌍성총관부
그리고 제주의 탐라총관부

이 세 곳에 몽골의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는 병참기지
총관부 두 곳 다 들어오게 되죠.

제주의 이 탐라총관부는 향후
그 이름을 달리하지만

몽골에 조공을 바칠 말을 직접
목호라는 몽고인들이 와서 사육하고

제주도에 도착화되면서

그 수는 1,700명에 달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시행되고

최영 장군이 이 목호의 난을 평정하기 전까지

몽골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제주도의 토속 술과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낙네들이 물을 운반할 때 쓰는
작은 항아리와 비슷한 도구입니다.

운반하는 사람이 등에 지고 다녀도
흔들리지 않아 물이 잘 새지 않죠.

바로 뭐냐!
'허버'라는 몽골어입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물허벅이란 말이

최근에 이 허벅이란 이름을 활용한 술도 나왔죠.

'허벅술'이라는 술이 바로 제주도의
유명 증류소주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제주 소주 하면 흔히
한라산 소주 등이 생각날 수 있지만

진짜 제주도 술은
'고소리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살짝 희석해서
제주도의 방어회와 같이 드시면

더할 나위 없이 맛있습니다.

제주도 애월읍에서
이 고소리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제주 샘주라는 곳인데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제주도의 술 문화를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주 하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주인공 혼자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쓰디쓴 소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드라마 속 소주를 마시는
주인공의 심경과

전쟁과 침략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소주

웬지 오늘은 그 둘의 공통점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술은
외국의 술과 뭐가 다른지

재료, 또는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 술과 외국의 술을
비교해서 어떤 가치와 풍류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